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의 문제

—언어공동체의 새로운 기준과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 대하여—

백채영
(서울대 철학과)

1. 들어가며—크립키의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

『비트겐슈타인—규칙과 사적 언어』에서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 해석의 중점은 『철학적 탐구』가 언어와 의미에 대한 회의적 역설을 담고 있으며, 이 회의적 역설에 대한 회의적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립키는 ‘ $68+75=?$ ’라는 질문의 답이 왜 ‘5’나 ‘10’, ‘100’이 아닌 ‘125’여야만 하냐는 회의론자의 질문을 소개하며, 우리가 이 간단한 질문에 어떤 식으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어떤 사실도 ‘+’로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수학적 표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언어적 표현 전체에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언어적 표현이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의미를 그 표현에 대한 옳은, 혹은 그른 의미로 만들어주는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가 더하기를 의미하고, ‘책상’은 책상을 의미한다고 믿으며,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일상 속에서 언어를 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크립키가 회의론자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회의적 역설이다; 우리는 언어 표현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의미를 담아서 언어 표

현들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한다. 하지만 회의론자의 눈으로 보면 언어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믿음은 완전히 부서진다. 회의론자의 관점에서는 모든 말이 의미 귀속 문장이 아닌, 단지 아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왜 특정한 언어적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인식론적 회의론이 아니다. 회의적 역설은 어떠한 사실도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아가 언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즉 회의적 역설은 의미에 대한 인식론적 회의를 넘어서 존재론적 회의이며, 어떻게 언어 자체가 가능한지를 묻는 언어에 대한 회의이다. 언어는 표현과 그 표현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연결하는 모종의 규칙을 따름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크립키는 과연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이 의미와 표현 간의 규칙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규칙이 우리의 언어 사용과 그에 관련된 행동 방식을 규정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크립키에 따르면 어떠한 규칙도 ‘+’로 어떤 다른 함수가 아닌 더하기를 의미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무엇도 ‘+’는 더하기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크립키는 일련의 논증을 통해 의미에 대한 회의적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회의적 방식의 해결책만이 회의적 역설과 일상생활의 언어 사용을 엮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크립키가 『비트겐슈타인-규칙과 사적 언어』에서 제시한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과연 크립키의 해석이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옳은 해석인지, 혹은 회의적 역설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은 있을 수 없는지 등이 크립키-비트겐슈타인을 둘러싼 쟁점들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크립키의 해석이 옳은지, 혹은 회의적 역설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본 논문은 크립키가 제시한 회의적 역설이 의미와 언어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인정한다. 나는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의 바탕 위에서,

과연 크립키가 제시한 해결책이 회의적 역설에 대한 회의적이면서도 알맞은 해결책인지를 검토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2.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

2.1. 크립키의 회의적 역설

크립키가 『비트겐슈타인-규칙과 사적 언어』의 2장에서 제기하는 의미에 대한 회의적 역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의미를 그 표현에 대한 옳은, 혹은 그른 의미로 만들어주는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어떤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식론적 주장이 아니다.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 즉 어떠한 언어적 표현에 관해서라도, 그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의미에 대한 존재론적 회의이며, 나아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냐는 언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규칙으로서 기능한다. 언어라는 규칙에 따를 때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지닌 말이 될 수 있다. 언어와 의미는 이러한 규칙 따르기(rule-following)의 규범적 관계로 묶여 있다. 크립키가 회의적 역설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의미와 사실 간에 부여하는 규칙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규칙이 실제 우리의 언어 사용과 그에 관련된 행동 방식을 규정해주어야 한다. ‘초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자. 이 단어가 언어적 표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초록’의 의미가 ‘초록’이 지시하는 초록색이어야 하고, 누군가 “저기 저 초록색 공책을 건네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사람

이 빨간 공책이 아닌 초록색 공책을 건네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회의적 역설은 이처럼 언어의 의미를 규정해주는 규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언어의 의미와 그 사용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규칙이 있다고 해도, 그 규칙과 전혀 다른 규칙으로도 우리의 현재 행위 방식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 더하기를 의미한다고 여기며, 그러한 의미로 과거에 ‘+’를 사용해 왔다. 과거에 ‘+’를 사용했던 이 유한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접하게 될 무한한 새로운 사례에도 ‘+’를 더하기로 사용하게 하는 그러한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회의론자는 ‘ $68+57=?$ ’이라는 질문의 답이 ‘125’가 아니라 ‘5’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임으로서 회의적 역설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가 앞뒤의 두 숫자를 더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함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 $68+57=125$ ’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회의론자는 ‘+’로 우리가 의미했던 것은 더하기(plus)가 아니라 곱하기(quus)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곱하기 함수는 ‘+’의 앞뒤 숫자 중 57 이상의 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5를 산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더하기 함수와 같은 식으로 작용하는 함수이다. 우리가 과거에 해 보았던 덧셈 사례는 유한하므로, 우리가 이전에 57 이상의 수가 포함된 덧셈을 해 본 적이 없다고 해보자(만약 이 사례가 당연히 과거에 해 보았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57을 엄청나게 큰 숫자로 바꾸어도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사례도 내가 ‘+’로 더하기를 의미하고 있었는지, 곱하기를 의미하고 있었는지를 보증해줄 수 없다. 이때까지 내가 57 미만의 수가 포함된 ‘+’의 사례만을 접해보아서 ‘+’가 더하기를 의미한다고 여겼던 것이지, 사실은 ‘+’로 곱하기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주장해도 이 주장에 대해 정당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 더하기를 의미하는 것은 ‘+’의 표준적인 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곱하기나 다른 함수를 의미하는 비표준적 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크립키는 물론 이 회의론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앞으로 ‘+’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로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를 의미하고

있었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과거 덧셈 사례들로부터는 ‘+’가 더하기를 의미하는지, 곱하기를 의미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 혹자는 ‘+’의 의미와 사용을 지시하는 일반적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이 ‘+’로 더하기만을 의미하게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규칙은 언제나 비표준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 $x+y$ ’의 답은 ‘ x ’ 개수만큼의 조약돌과 ‘ y ’ 개수만큼의 조약돌을 함께 센 결과이다”라는 규칙을 내세울 경우, 여기서 ‘세다’는 사실 세다(count)가 아니라 제다(qount)를 의미한다는 식으로 이 규칙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 규칙 역시 의미를 보증해줄 수 없다. 회의론자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모든 규칙과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하여 비표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한 편 회의적 역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직접 알려지는 특정한 심적 상태, 즉 언어 사용과 관련된 특유의 심상이나 감각질을 가진 심적 상태에 의해 ‘+’로 더하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러나 크립키는 이 반론 역시 회의적 역설에 대한 성공적 반론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고통이나 간지러움 같은 경험은 특정한 감각질을 갖지만, ‘+’를 더하기로 사용할 때 반드시 특정한 심상이나 감각질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를 더하기 함수로 사용할 때 그러한 특별한 성질의 심적 상태를 갖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규칙을 따르듯이 ‘+’를 더하기로 사용하고, ‘초록’을 초록으로 사용한다. 설령 ‘+’를 더하기로 사용할 때 그러한 심상이 수반된다고 해도, 그 심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호나 다름없으므로¹⁾ 앞으로 주어질 덧셈의 사례들에 대해 어떤 답변을 주어야 할지를 결정할 힘을 갖고 있지 않다.

한 편 성향주의를 통해 언어와 의미 간의 규범적 관계를 설명하려

1) 우리가 빨간 물체를 볼 때, 그 경험은 ‘빨강다’는 어떤 감각질을 갖는다. 그러나 그 감각질이 곧 내가 본 물체가 빨간색임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감각질은 내가 빨간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경험을 나타내는 기호에 가깝다. ‘+’를 더하기로 사용하는 경험에 특정한 심상이나 감각질이 수반된다면, 이 심상 혹은 감각질 역시 기호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는 사람들은 ‘+’가 우리가 ‘+’ 앞뒤로 주어진 수들을 더한 답을 제시하려는 성향이 있는 그러한 함수를 지칭한다고 설명한다.²⁾ 즉 우리에게 ‘+’가 주어지면 덧셈을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 성향을 통해 ‘+’는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성향에 의해서는 의미의 규범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가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를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준다. 내가 ‘+’의 의미를 안다면, 나는 ‘+’의 의미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 $68+57=?$ ’의 사례에 ‘125’라고 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안다. ‘+’의 의미가 덧셈 사례에서 더하기 함수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반면 성향주의적 관점에서는 ‘+’가 주어지면 덧셈을 하는 ‘덧셈 성향’이 ‘+’를 더하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결정한다. 이 때 덧셈 성향은 ‘+’가 더하기를 의미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것만을 보여준다. 성향주의에 따르면 ‘+’의 의미가 ‘+’의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 성향에 의해 ‘+’가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의 의미가 읽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덧셈 성향은 ‘+’를 더하기로 사용하는 행위를 기술적(descriptive)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데, 실제로 ‘+’를 더하기로 사용하는 행위는 ‘+’의 의미에 의해 규범적(normative)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향주의는 언어와 의미의 규범적 관계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으므로, 왜 ‘+’가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를 의미해야만 하느냐는 회의론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 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향주의는 ‘화자가 ‘+’로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의미하는 경우’와, ‘화자가 체계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만 ‘+’로 더하기를 의미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실수를 하는 성향에 의해 ‘+’가 사용되고, 그 사용에 의해 ‘+’의 의미가 읽어

2)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규칙과 사적 언어』의 2장에서 성향주의에 기초한 반론 및 그에 대한 재반론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향주의에 대한 반론 및 재반론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의 48~72쪽을 참조할 수 있다.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향주의에 근거한 반론의 두 번째 문제는 성향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덧셈 사례에 대한 답을 결정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 덧셈 성향은 ‘+’가 더하기를 의미해야만 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한한 덧셈 사례로부터 ‘+’가 더하기를 의미한다는 것을 읽어내게 한다. 만약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 질문을 다 읽기만 해도 수십년이 걸릴 정도의 덧셈 질문을 받았을 때, 덧셈 성향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덧셈 성향은 우리가 겪었던 유한한 덧셈 사례만큼 유한하며, 이 유한한 성향은 덧셈의 무한한 사례들의 답을 모두 결정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의 의미는 무한한 덧셈 사례들에 대하여 옳은 답이 무엇인지를 모두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논증을 거쳐 크립키는 회의적 역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의미 귀속 문장에 대하여 이 문장을 옳은 것으로, 혹은 그른 것으로 해주는 사실이란 없다, 즉 의미 귀속 문장에 대하여 그 의미를 확정해줄 수 있는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곧 언어와 의미간의 규범적 관계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의 언어 사용과 그에 관련된 행동 방식을 규정해줄 수 있는 의미의 규범성이 부정되면, 결국 언어라는 것 자체가 도무지 가능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다. 회의주의자의 공격도, 그에 대한 반론과 이어지는 재반론 모두 언어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크립키가 제시한 이 의미에 대한 회의론적 관점은 역설적이다; 우리는 언어가 가능함을 알고,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회의론적으로, 언어는 불가능하다.

2.2.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

회의적 역설과 그에 관련한 크립키의 논증은 그 어떤 것도 의미를 표현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낳게 되며, 이 결론은 자연히 언

어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더 파괴적인 결론으로 이어진다. 회의적 역설에 따르면 인간의 말과 글자는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 나뭇잎의 모양만큼이나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물론이고 크립키 역시 이러한 회의적 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긴다. 우리의 언어활동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이 언어활동은 의미귀속 문장들의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구성된다. 만약 회의적 역설이 언어의 진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언어활동을 전혀 설명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언어활동들을 부정해야 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결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회의적 역설은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미 2장에서 크립키는 회의적 역설을 해소하는 방식의 직접적 해결책들이 모두 불충분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해결책은 회의적 역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언어활동을 설명해줄 수 있는 해결책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크립키는 회의적 역설에 대한 단 하나의 가능한 해결책으로서의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 귀속 문장이 진리조건이 아닌 주장가능성 조건(assertability condition)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 의미가 그 문장이 지시하는 사실과 일치한다는 조건에 의해 의미 귀속 문장이 옳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의미 귀속 문장이 옳게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특정한 조건하에서 의미 귀속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고, 또 그 주장가능성 조건에 따라 행하는 언어 활동들이 실제 삶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크립키는 이 목적에 맞는, 그리고 회의적 역설을 해소할 수는 없어도 일상적 언어생활과 회의적 역설을 양립가능하게 해주는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이 제시하는 주장가능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이 그의 언어 사용을 교정해줄 수 있는 타인들로 구성된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언어적 표현을 옳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회의적 해결책이 제시하는 주장가능성 조건의 핵심은 언어공동체

이다. 언어공동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성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즉 언어공동체는 의미를 언어에 귀속시키는 절대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 귀속 문장을 사용할 때 이 언어공동체 안에서 그 문장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서 의미 귀속 문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언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크립키는 언어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어공동체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회의적 해결책을 다루는 3장에서 드러난 공동체의 모습은 그것이 내 바깥의 타인으로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그 타인이 나의 언어 사용을 교정해 줄 수 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 모호한 언어공동체를 통해서만 언어가 가능하다; 그가 타인에 의해 그의 언어활동을 교정 받을 수 있을 때, 즉 자신보다 더 넓은 언어공동체와 상호작용할 때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언어공동체의 성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그는 언어 활동을 통해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이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의미 귀속 문장을 특정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언어적 소통이 필요한 일상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3. 회의적 해결책의 의의와 한계

회의적 해결책의 목적은 의미와 언어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회의적 역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크립키에 따르면, 회의적 해결책의 목적은 철저히 버클리적이다:

버클리가 취하는 입장은 철학에서 드문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은 분명히 상식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견해를 옹호한다. 그는 상식을

공격하는 대신 그런 충돌이 상식적인 언어를 철학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겼다고 주장한다.³⁾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에서 벌이는 작업을 콰인, 흄 등의 철학과 비교하는데, 버클리 역시 비교되는 철학자들 중 하나다. 버클리는 자신의 철학적 작업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드러난 현실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크립키는 비트겐슈타인 역시 『철학적 탐구』에서 바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회의적 해결책의 단초는 바로 이 목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본다. 과연 비트겐슈타인이 크립키가 제시한 것과 같은 회의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겠지만, 버클리와 비트겐슈타인, 나아가 크립키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회의적 해결책은 구체적이고 철학적인 모델을 통해 언어와 의미가 사용되는 방식을 그 모델에 맞게 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집중하고, 이에 기반하여 회의적 역설과 언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회의적 해결책은 일상적 언어활동에서 의미와 언어의 관계가 어떻게 규범적인 것처럼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결국 버클리적 목표를 따르는 이상,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언어에 대해 기술적(descriptive)으로 접근하게 된다. 언어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쓰이고, 또 삶 속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므로, 언어에 의미를 할당하는 ‘규칙 따르기’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매끄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사용되는 것’으로서의 언어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의적 해결책은 언어와 의미의 사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데 충실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이 의미가 귀속된 언어의 사용 및 그 역할을 기술하는 데 있어 가장 기

3) 술 A. 크립키, 『비트겐슈타인-규칙과 사적 언어』, 2008, p. 111.

본적인 전제는 회의적 역설이다. 회의적 해결책은 언어와 의미의 규범적 관계를 끊어버린 회의적 역설을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언어가 실제 삶 속에서 의미와 규범적 관계를 형성하는 듯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회의적 해결책이 언어와 의미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이라는 점은 언어공동체에 대한 크립키의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공동체는 언어와 의미를 연결하는 진리 조건 대신 언어에 의미를 묶어둘 수 있는 주장가능성 조건을 제공하며,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개인은 자기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정작 언어공동체 자체에 대해서는 동일성 조건 등을 설명하는 대신 매우 간략한 특징-예컨대 개인의 언어사용을 교정해줄 수 있는 타인들, 혹은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는 타인들-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버클리적 목표에 충실한 결과다; 일상 언어에서는 언어와 의미간의 엄밀한 규범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크립키는 이를 『철학적 탐구』의 §§79-80에 대한 해석을 통해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의 사용 방식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특히 규칙에 관한 모든 설명이 오해받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가장 정확해 보이는 언어의 쓰임도 ‘대강의’, ‘부정확한’ 혹은 ‘춤춤하지 않은’ 사용 방식들과 다르지 않다.⁴⁾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다.”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명백해 보인다; 그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다. 한국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장이 발화되었을 때 이 문장의 의미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누군가 내게 지나가는 사람들 중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 문장을 발화했다고 해 보자. 내가 ‘평범

4) Ibid., p. 136.

한 중년'의 남성을 몸집이 좀 크고, 흰 머리가 있는 남성을 의미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마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젊어보이는 남성을 의미한다고 여길 수도 있다. 상대방 역시 '평범한 중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겠지만, 내가 상대방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나와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 이 대화를 진행하게 될 수 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명료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 귀속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표현이 실제로 사용될 때 그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처럼 애초에 불명확한 언어 사용 방식을 설명하는 데는 엄밀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좀 불명확하더라도 실제 언어활동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크립키는 후자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실제 언어활동을 효과적으로 기술해 줄 수 있는 언어공동체를 회의적 해결책의 핵심 내용으로 삼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의적 해결책이 과연 회의적 역설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회의적 해결책이 그 핵심 개념인 언어공동체 및 교정가능성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언어의 역할과 유용성을 제대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회의적 역설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해 회의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화되는 의미 귀속 문장들의 의미는 그 문장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대강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된다. 크립키는 이 의미와 언어의 관계를 '언어공동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회의적 역설을 해소하지 않고도 일상적 언어 사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언어공동체 개념은 분명히 모호하다. 그러나 문제는 언어공동체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공동체의 모호함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회의적 해결책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회의적 해결책의 의견에 따르면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발화내용을 교정해 줄 수 있는 타인들로 구성된 언어공동체의 일원이 아닐 경우 그 개인은 자신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타당하게 주장할 수 없

다. 물론 크립키는 언어공동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언어공동체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언어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엄밀한 이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버클리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없는 까닭에 오히려 언어공동체는 잘못 해석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 등장하는 언어공동체 개념에 대하여 흔히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의 특정 언어와 관련된 언어공동체만을 고려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언어공동체가 진리 조건을 대신하여 언어와 의미의 관계를 고정해주는 규칙 혹은 고정된 성향이라는 해석⁵⁾ 등도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모두 회의적 해결책의 목적과 그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해석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이 본래의 버클리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회의적 해결책을 적절히 수정하고 이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회의적 역설과 언어의 쓰임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4. 회의적 해결책의 수정

크립키가 제시한 원래 형태의 회의적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된다:

(SS) 거의 모든 경우 내가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이 의미 귀속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5) M. Kusch, *A Sceptical Guide to Meaning and Rules*, 2006, pp. 55~59에서 쿠쉬Kusch가 비판하는 보고시안P. Boghossian의 견해를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다. 보고시안은 언어공동체에 의해 개인의 언어 사용이 교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이 결국은 의미 귀속 표현들의 ‘올바른’ 사용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한 언어적 표현을 올바른 의미로 사용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주장하는 성향주의와 다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한다.

이 크립키의 해결책이 일상적 언어 사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공동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언어공동체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실제 언어활동의 부정확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 언어공동체에 대한 설명의 부재가 그 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공동체 및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의적 해결책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SS*) 거의 모든 경우 내가 그 표현을 발화하고 있는 바로 지금 내가 발화 상대로 삼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이 의미 귀속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기존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핵심 주장 위에 세워진다: 어떤 표현이 의미 귀속 문장으로 적절히 주장될 수 있으려면 그 표현을 발화하는 사람이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며, 이 언어 공동체는 발화된 표현에 대한 교정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점은 기존 회의적 해결책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기존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수정된 부분은 언어공동체의 형태에 대한 내용이다.

‘내가 그 표현을 발화하고 있는 바로 지금 내가 발화 상대로 삼고 있는 언어공동체’라는 것은 곧 개인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언어공동체에 속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의적 해결책에서 제시한 언어공동체는 보통 한국어-언어공동체, 영어-언어공동체, 프랑스어-언어공동체 등의, 특정한 언어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언어공동체만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다양한 층위의 수많은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어-언어공동체에 속해있으나, 그 이전에 언어-언어공동체(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속해있으며, 한국어-언어공동체 중에서도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형태에 따라 S학교-언어공동체, F가족-언어공동체, 심지어 나와 P-언어공동체처럼 그 구성원이 나와 다른 사람 한 명 뿐인 아주 작고 사소한 언어공동체에도 속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작고 사소한 하위 언어공동체들의 동일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어떤 A-언어공동체와 B-언어공동체가 다르다고 할 때, 이 언어공동체들은 어떤 한 단어라도 서로 다르게 사용할 경우 각각 다른 언어공동체가 된다. 예를 들어 나와 어머니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어머니가 ‘편다’라는 은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각자 다른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언어공동체 등의 중간 층위의 언어공동체나 언어-언어공동체와 같은 상위 언어공동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동일성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위 언어공동체들은 하위 언어공동체들이 겹쳐지면서 그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하위의 언어공동체 이외의 상위 언어공동체들에 대해서는 동일성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의 다수 언어공동체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공동체가 이론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닌, 실제 언어생활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회의적 해결책에서 기본적으로 언어공동체의 본성은 일상적 언어사용만큼이나 언어와 의미를 대강 임시적으로 연결하는 불명확한 것이다. 만약 언어공동체가 어떤 언어적 표현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완전히 타당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면, 회의적 해결책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우 회의적 해결책은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확정해 주는 것은 언어공동체라고 주장함으로써 회의적 역설을 부정하는 직접적 해결책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 크립키가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 개념을 이러한 의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그는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을 회의적 해결책이라 부르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또한 언어공동체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떠한 조건을 갖춘 공동체가 언어공동체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립키가 언어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분명히 이러한 것이 아니다. 언어공동체 개념을 고려할 때, 우

리는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은 회의적 역설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를 언어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떤 고정된 규칙이나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의미 귀속 문장들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의미가 언어에 귀속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는 의미를 고정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언어공동체는 단순히 개인이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해 말하고 있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해 줄 뿐이다.

회의적 역설과 양립 가능한 언어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언어에 의미를 고정시키지 않으므로, 세상에 다수의 언어공동체가 있든, 단 하나의 언어공동체만이 있든 간에 의미를 언어에 귀속시키는 어떠한 규칙도 생기지 않는다. 언어공동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과 언어공동체가 의미를 고정하는 것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언어 공동체가 한국어-언어공동체, 독일어-언어공동체 등의 고정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는 그 성원의 발화를 교정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공동체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언어공동체이면서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경우에서 이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와 동생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아래서 자랐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파랑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 표현을 파란색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초록색을 띠는 것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나와 동생은 ‘파랑다’는 표현으로 오로지 파란색만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 속에서 소소한 충돌을 불러온다; 외할아버지가 “서랍 속에 파란 지갑 좀 가져와라.”라고 말할 때, 나는 “그런 지갑은 서랍 속에 없어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직접 서랍을 열어 보신 후 여기 지갑이 있는데 왜 가져오지 않았냐고 꾸지람을 하신다. 물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서랍 안에는 다른 색의 동전 지갑들과 함께 파란색이 아닌 초록색 지갑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을 동생이 옆에서 보고 있었을 경우, 동생은 “서랍 속에는 정말로 파란 지갑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반대로 외할머니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외할머니는 “서랍 속에 파란 지갑이 있었는데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실 것이다. 동생과 내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파랗다’의 사용을 교정하려고 해도 두 분은 이를 잘 납득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건 ‘파란’ 지갑이 아니라 ‘초록’ 지갑이라고 이야기해도, 두 분에게 위의 상황은 ‘파란’ 지갑이 너무나 명백히 서랍 안에 있었는데 내가 게으름이나 귀찮음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다. ‘파랗다’와 비슷한 경우의 몇몇 표현들의 사용을 제외하면, 동생과 나, 그리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어를 사용한다. 외할아버지께서 연필을 가리키며 “저 펜 좀 집어와라.”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이 ‘펜’이 아닌 ‘연필’이라고 교정할 수 있고, 외할아버지도 그 교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어떤 표현들의 경우, 동생과 나에게는 그것이 명백히 옳지 않은 사용처럼 느껴지는 데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에게는 당연히 옳은 사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신조어를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언어공동체가 특정한 형식, 예컨대 한국어-언어공동체, 독일어-언어공동체 등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면 실제 언어 활동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다. 한국어-언어공동체의 형식을 따르면 분명히 같은 언어공동체에 속한 성원들끼리 서로의 발화를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이 다른 언어공동체에 속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그들이 서로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한국어-언어공동체의 성원이지만, 동시에 각자 다른 언어공동체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 언어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공동체가 융통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언어공동체들은 실제로 쉽게 생겨나고, 변화하거나 소멸될 수 있으며, 임시적이다. 개인이 발화를 통해 무언가를 의미하려 하고, 이 때 발화 상대자가 그 발화된 표현을 이해하고 또 발화자가 이해 가능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소통할 때, 이 일련의 과정이 성공적이면, 이 과정이 성공적인 한까지 그 둘은

소통가능하며, 이 경우 이 둘의 언어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때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의미가 귀속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두 사람이 서로의 발화를 수용하거나 교정할 때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컨대 한쪽이 상대방의 발화를 교정해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왜 그렇게 교정해야 하지? 오히려 네가 교정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틀려.”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 두 사람은 교정에서의 불일치를 겪게 되며, 이 경우 이 언어공동체는 깨지게 된다.

또한 언어공동체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언어공동체들이 서로 배타적이라면, 한 언어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다른 언어공동체의 언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저것은 언어가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공동체들 간에 이러한 치명적인 배타성은 있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언어-언어공동체, 한국어-언어공동체, F가족-언어공동체, 나와 P-언어공동체의 예에서처럼, 언어공동체들은 형태에서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층위에 있어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언어-언어공동체는 한국어-언어공동체, 영어-언어공동체, 프랑스어-언어공동체 등의 다양한 하위 언어공동체들이 겹쳐지며 만들어지고, 한국어-언어공동체는 전라도-언어공동체, 경상도-언어공동체 등의 그 하위 언어공동체들에 의해 구성되며, 이 하위 언어공동체들은 또 C회사-언어공동체, S학교-언어공동체 등의 하위 언어공동체들에 의해 구성된다. 이러한 식으로 최소한의 규모인 2명으로 이루어진 가장 하위의 언어공동체들로부터 시작하여 상위의 언어공동체들이 구성된다는 것은 곧 내가 속하지 않는 언어공동체에서 언어로 통용되는 것을 언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프랑스에 가서 생활하게 될 때, 그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프랑스인들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가 한국어-언어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지만 나는 속하지 않는 다른 하위 언어 공동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그것이 언어라는 점은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언어공동체가 존재한다고 설명할 때, 하위 언어 공동체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다. 먼저 언어-언어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위 언어공동체들인 한국어-언어공동체, 러시아어-언어공동체 등은 매우 간단하게 구분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국어-언어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영어-언어공동체에 속한다.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금 발화 상대로 삼고 있는 언어공동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한국어-언어공동체에 속할 때도 있고, 영어-언어공동체에 속할 때도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언어공동체를 구성하는 하위 언어공동체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도 사소한 차이로 구분된다. 전라도나 경상도처럼 지역 방언으로 나뉘어지는 언어공동체 뿐만 아니라, 특정 신조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은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등도 한국어-언어공동체의 하위 언어공동체가 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두 사람이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보통 한국어-언어공동체에서 수용하는 사용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알랭 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서 주인공은 애인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대신 “너를 마쉬멜로우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애인은 이 말을 듣고 그가 전하고자 했던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는 나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만약 이 둘이 바깥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이 음식을 정말 마쉬멜로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히 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말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방식으로든 새로운 언어공동체는 생겨날 수 있고, 개인은 이러한 매우 사소한 언어공동체들, 그리고 좀 더 상위의 언어공동체들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개인이 여러 가지 언어공동체들에 동시에 속해 있을 경우, 그가 어떤 의미 귀속 문장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지금 언어

를 사용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장 가능성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 내가 어떤 문장 E를 발화할 때, 만약 지금의 발화 상대가 A-언어공동체라면 A-언어공동체가 납득하는 의미로서 E를 발화해야 할 것이고, 만약 자신이 속한 언어공동체들 중 A-언어공동체가 아닌 다른 언어공동체가 납득하는 의미로서 E를 발화한다면 교정을 받게 되거나 이해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마쉬멜로우-언어공동체의 예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주인공과 그의 애인이 둘이서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감정을 의미하기 위해 ‘마쉬멜로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둘이 각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사랑하다’라는 표현 대신 ‘마쉬멜로우하다’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주인공이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제출한 기획서를 보고 “전 이 새로운 기획을 아주 마쉬멜로우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부하 직원은 대체 그가 자신의 기획서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서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주인공은 마쉬멜로우-언어공동체를 상대로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C회사-언어공동체, 그리고 한국어-언어공동체를 상대로 발화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마쉬멜로우-언어공동체가 아니라 C회사-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언어를 통해 적절하게 주장할 수 없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다양한 형태와 층위의 언어공동체들이 가능하며, 개인은 이러한 다수의 언어공동체들에 속해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이 어떤 의미 귀속 문장을 발화할 때, 거의 모든 경우 그가 그 표현을 발화하고 있는 바로 지금 발화 상대로 삼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그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의미 귀속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 회의적 역설을 받아들이는 이상 언어공동체는 견고한 경계를 지닌 것이 아니라 매우 희미한 경계를 지닌 공동체가 되므로 그 생성 및 변화가 매우 쉽게 이루어지고, 개인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와 층위의 언어공동체들에 동시에 속하게 된다. 이는 회의적 역설과 일상적인 언어 사용을 충돌시키지 않고도 언어의 쓰임을 기술하도록 해준

다. 일상적 언어활동에서 우리가 발화하는 언어적 표현의 의미는 종종 부정확하며, 그러한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발화한 내용의 의미를 대강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는 언어 사용자가 다양한 다수의 언어공동체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 곧 이 부정확한 언어와 의미간의 관계를 설명해준다: 개인은 다수 언어공동체들에 속해있으며, 이 언어공동체들은 모두 뚜렷한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언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와 대화하고 있음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거나, 그 언어공동체가 소멸 혹은 변화했을 경우, 상대방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더 상위의 언어공동체에 의해(심지어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어떤 의미를 내가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을 대강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바로 이 언어공동체의 융통성과 느슨함을 통해 일상적 언어활동에 나타나는 부정확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5. 언어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한가?—데이빗슨의 삼각 작용과 언어공동체의 유효성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제시하는 언어공동체는 매우 희미한 경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언어공동체에 가입한다는 의식 없이도 여러 언어공동체에 속하고, 발화 시 상대하는 언어공동체에서 납득하는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처럼 언어공동체가 매우 느슨하고 융통적인 것이 될 경우, 이렇게까지 희미해진 언어공동체의 개념을 반드시 회의적 해결책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언어공동체가 두 명이 사용하는 은어나 특이한 언어 사용 방식으로 성립될 정도로 느슨한 경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면, 굳이 언어가 언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언어공동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 앞서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

책에도 제기되었던 논점으로, 이와 관련해서 과연 언어공동체에 의해서만 언어가 가능하게 되는가, 혹은 언어공동체와 개인을 구별해주는 지점은 어디인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회의적 해결책에서의 언어공동체와 관련된 비판 중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의 문제와 가장 관련있는 비판을 제기한 것은 데이빗슨D. Davidson이다. 데이빗슨은 언어공동체를 사용하여 언어의 사용을 설명하는 회의적 해결책의 언어관을 부정한다.

…이것[번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화자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의도이다; 그러나 이 의도를 수행하는 것에는, 비록 이것[의도를 수행하는 것]이 상대방이 일관성이라 지각할 정도여야 한다고 해도, 공유되는 규칙이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비록 언어를 사용하는 데 번역자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는 것은 참일지라도, 이로부터 한 명 이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 따라나오지는 않는다. …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크립키의 기준이 옳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처럼 (혹은 다수의 다른 사람들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⁶⁾

흥미로운 것은 이 주장의 근거가 언어공동체를 핵심으로 하는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의 관점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일단 “언어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라는 회의적 역설의 물음에 대해 데이빗슨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언어는 발화자가 번역되고자 하는 의도로 발화했을 때, 발화자와 충분히 비슷한 ‘두 번째 사람(the second person)’이 있고, 그가 발화를 번역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을 때 가능해진다. 데이빗슨의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를 표현에 귀속시켜주는 사실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점, 그리고 언어가 사회적이며 그러한 한에서만 언어가 가능해진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크립키와 동일하다. 그러나 데이빗슨에 있어 이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공동체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에 의한 것이다. 데이빗슨의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이론은 몇

6) Davidson, “The Second Person (reprinted)”, 2001, pp. 114~115.

가지 측면에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데이빗슨의 이론에서도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필요하다. 즉,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언어는 반드시 거대한 언어공동체를 통해 사회성을 획득하지 않는다. 두 명만 있어도 그 둘은 자신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이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때 그 둘은 서로 성공적으로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데이빗슨의 이론은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과 거의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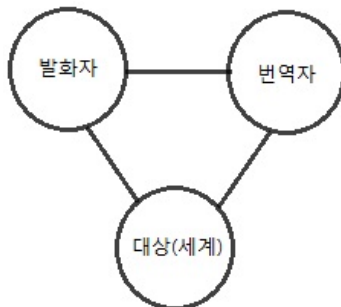
하지만 두 이론은 언어공동체의 필요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완전히 구분된다. 데이빗슨은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언어공동체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그는 언어공동체가 언어와 의미의 ‘규칙 따르기’ 모델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언어와 의미를 연결하는 것, 즉 어떤 언어적 표현의 옳은 사용(더 정확히 말하자면 옳다고 보여지는 사용)을 담지하는 그러한 규칙이다. 데이빗슨은 크립키가 언어공동체를 사용하여 언어의 쓰임을 이 규칙 따르기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내가 나는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언어공동체가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to go on in the same way)’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규칙의 역할을 해 주기 때문이다. 언어공동체가 이러한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개인은 언어공동체에 의해 자신이 어떤 의미 귀속 문장을 사용한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받고 자신의 언어 사용을 교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데이빗슨은 한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하여, 혹은 두 명 이상이 언어를 통해 소통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데이빗슨의 이론에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발화자와 그 발화를 듣고 번역하려는 의도를 가진 번역자가 있을 때 언어가 가능해진다.

당신과 내가 지구상의 유일한 언어 사용자들이고, 당신은 셰르파족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나는 영어를 사용한다고 할 때, 비록

우리 각자가 다른 ‘규칙들’을 따른다고 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각자 상대방에서 언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⁷⁾

크립키의 주장에서는 발화자가 무언가를 의미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에 의존하지만, 한 사람이 자신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가 실제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간의 차이점은 그 화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번역되고자 하는 의도가 성공했는지에 달려있다.⁸⁾

따라서 데이빗슨은 규칙 따르기 모델에 의존하는 언어공동체를 버리고 발화자와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계로 이루어진 ‘삼각작용(Triangulation)’을 통해 어떻게 언어가 가능한지를 보이고자 한다. 삼각작용은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언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발화자 외의 두 번째 사람이 존재해야 하며, 발화자와 이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고, 두 사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언어는 대상(세계)-발화자, 대상-번역자, 그리고 발화자-번역자간의 삼각 관계에 의해 사용된다.



어떠한 대상이 있고, 발화자가 그 대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번역자도 그 대상을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고, 번역자가 발

7) Ibid., p.114.

8) Ibid., p.117.

화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 및 발화가 자신의 인식 및 발화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면 언어는 성립한다. 즉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세계와 발화자, 번역자라는 세 개의 축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언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쿠쉬M. Kusch는 자신의 책에서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데이빗슨의 비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 회의적 해결책에서 의미를 할당하는 것(attributions of meanings)은 규칙을 할당하는 것(attributions of rules)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⁹⁾ 쿠쉬는 의미를 할당하는 것과 규칙을 할당하는 것이 각각 다른 문제이며, 한 의미이론을 통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 두 문제 중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회의적 역설에 대한 논의에서 산술 규칙이나 문법 규칙 같은 사례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문제가 동일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쿠쉬는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는 것이 규칙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데이빗슨의 지적이 옳으며, 크립키 역시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크립키가 회의적 해결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과 의미를 할당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은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의 역할이 언어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실제로 언어공동체는 언어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도,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은 **같은 규칙을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회의적 해결책의 관점에서, 내가 앞에 있는 파란색 컵을 가리키며 “여기 파란 컵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같은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발화-번역의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된 것이다. 이 때 같은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규칙에 따라 ‘파랗다’, ‘컵’ 등의 표현들

9) 데이빗슨의 이론 및 회의론적 반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usch, 2006, p. 88 참조.

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데이빗슨이 말한 것처럼¹⁰⁾, 우리는 언어를 익히면서 ‘파랗다’는 표현은 어느 규칙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하고, ‘킵’은 어느 규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어느 순간 ‘파랗다’, ‘킵’이라는 표현들을, 순전히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의미를 담은 발화로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 방식은 우리가 비슷한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유된다. 두 사람이 한 표현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저 두 사람이 다른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따라서 다른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언어공동체와 규칙 따르기를 같은 맥락에서 보려는 데이빗슨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회의적 해결책이 언어의 **옳은** 사용이 아니라 **언어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들과 같은 방식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공동체는 언어 사용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곧 한국어이다’와 같은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언어를 한 언어공동체의 성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언어가 삶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데이빗슨이 언어공동체와 관련하여 회의적 해결책을 비판할 때 사용한 ‘규칙 따르기’ 모델에서 핵심적인 것은 그 규칙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언어공동체는 그러한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 언어공동체는 그저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있는 그 때 그들이 비슷한 의미로 의미 귀속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

10) “대부분의 언어 학습은 어떠한 규칙을 배우거나 아는 것과 관계없이 성취된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일을 어떤 절차를 따르는 일, 마치 산수에서 더하기를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 그러나 이 [두] 경우들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왜 우리가 보통 한 경우에는 “규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해준다. 더하기의 경우에는 답에 도착하는 명백한 절차가 있다; 우리는 절차를 배우고 묘사할 수 있으며, 이 절차나 그 절차의 묘사를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말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도 따르지 않는다; 일상적 언어 사용의 그 무엇도 더하기에서 합을 구하는 것과 대응하지 않는다.” Davidson, pp. 113~114

해줄 뿐이다. 이는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소멸할 수 있으며, 매우 쉽게 새로 생성된다. 이러한 언어공동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수 없다. 언어공동체 자체가 이미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규칙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곧 그들이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두 사람이 ‘사랑하다’ 대신 ‘마쉬멜로우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두 사람은 ‘우리는 사랑한다는 감정을 ‘마쉬멜로우하다’라고 칭할 것이다’라는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무엇도 그러한 규칙을 그들에게 부과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너를 마쉬멜로우해.”라고 말할 때 번역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은 상대방과 자신이 공유하고 있는 개인적 역사와 환경 등에 의해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한다. 이 발화-번역이 서로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일 없이 이어진다는 것이 곧 그들이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속함을 드러낸다.

데이빗슨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을 ‘규칙 따르기’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가 설명하는 언어 사용의 양상 역시 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은 언어적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 발화자와 번역자가 같은 규칙을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이 정말로 아무것도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발화자와 번역자는 서로 각자가 같은 방식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발화자는 번역자가, 번역자는 발화자가 같은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있음을 각각 알고, 이에 근거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회의적 해결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언어적 소통의 양상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두 사람은 발화된 의미 귀속 문장들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언어공동체는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이 의미 귀속 문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데이빗슨 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두 사람이 같은 대상에 대해 반응하고 있음을 안다는 점을 드러내 줄 뿐이다.

따라서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는 ‘규칙 따르기’ 모델에서의

규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공동체가 회의적 해결책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데이빗슨의 주장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언어공동체와 규칙 따르기를 더 이상 연관짓지 않는다면, 데이빗슨의 언어관은 사실상 회의적 해결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데이빗슨의 삼각작용은 회의적 해결책의 핵심인 언어공동체 개념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6.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의미 귀속 표현의 문제

위에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제시하는 느슨한 형태의 언어공동체들이 반드시 필요하느냐는 비판에 답하였다. 그러나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 이야기하는 형태의 언어공동체들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온다. 과연 이렇게 임시적이고 융통적인 언어공동체를 통해서 ‘+’와 같은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의미 귀속 표현들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¹¹⁾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언어공동체들이 항상 변화와 소멸에 열려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의미 귀속 표현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언어공동체의 융통성에 담긴 의미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 귀속 표현들의 경우에는, 그 표현과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미와 표현간의 절대적 규범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학적 표현들, 구체적으로는 크립키가 회의적 논증에서 계속해서 사용한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회의적 역설에 따르면 ‘+’로 곱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 곱하기란, ‘ $x+y$ ’에서 ‘ x ’와 ‘ y ’가 57 미만일 경우 이 둘을 더한 결과를 산출하고, 둘 중 하나라도 57 이상일 경우 무조건 5를 산출하는 그러한 함수이다. 어쨌든 어느 회의론자가 ‘+’로 곱하기를 의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 보자. 회의적

11) 이 문제, 특히 수학적 표현들과 같은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표현들과 관련된 문제는 강진호 교수가 제시한 것이다.

역설에 따르면 그가 ‘+’로 겹하기를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실도 없지만, 그가 ‘+’로 겹하기를 의미하게 될 경우 그는 최소한 계산능력이 필요한 모든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종종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확실히 수학적 표현들의 경우에는 의미와 표현간의 관계가 ‘파랗다’, ‘사랑하다’ 등의 표현들에 있어서의 의미와 표현간의 관계보다 훨씬 규범적이다. ‘파랗다’는 표현을 파란색과 초록색에 동시에 사용하는 것, 혹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사랑하다’대신 ‘마쉬멜로우하다’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가능하다. 심지어 어찌면 먼 미래에는 ‘파랗다’와 ‘사랑하다’라는 표현의 쓰임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 더 이상 더하기를 의미하지 않게 되거나, 한 언어공동체에서 ‘+’를 더하기로 의미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처럼 ‘+’와 같은 어떤 표현들의 경우에는 표현과 의미간에 절대적 규범성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언어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소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의미 귀속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은, ‘+’가 언젠가는 겹하기를 의미하게 되거나, 어떤 언어공동체가 ‘+’로 겹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즉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를 더하기가 아닌 겹하기로 의미하는 언어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일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수학적 표현들 등의 경우에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연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이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로 더하기가 아닌 겹하기를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런 것은 ‘+’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여기거나, 그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가 ‘+’와 더하기의 규범적 관계를 끊는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최소한 수학적 규칙과 같은 이러한 절대적 규범성이 성립하는 표현들의 경우, 이 표현들은 어떤 소수의 하위

언어공동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언어공동체, 즉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적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로 겹하기를 의미하는 겹하기-언어공동체 등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표현들을 다르게 사용하는 언어공동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물론 언어-언어공동체와 관련하여, 현재 언어-언어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표현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방식으로 그 표현들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가 나타나면 그 언어공동체는 언어-언어공동체의 바깥에, 즉 非언어-언어공동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 전제하는 언어공동체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겹하기-언어공동체가 非언어-언어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로 겹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언어일 수 없음을 뜻한다. 그러나 사실 겹하기-언어공동체와, 앞에서 이야기한 마쉬멜로우-언어공동체의 사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마쉬멜로우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두 사람의 말을, 예컨대 옆집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너를 마쉬멜로우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최소한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일-예를 들어 ‘+’로 겹하기를 의미하는 종교집단이 생기는 경우-에 의해 겹하기-언어공동체가 생긴다고 할 때, 그들이 “ $68+57=5$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실수를 했거나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 간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회의론에 심취한 어느 개인이 “나는 지금부터 ‘+’로 겹하기를 의미하겠다!”고 선언하고 ‘+’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겹하기-언어공동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를 겹하기로 사용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다. 단지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어도 정말로 절대적 규범성을 지닌 표현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경우, 그것을 새로운 하위 언어공동체

의 성립으로 여겨야 한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뿐이다.

결국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에서는 누군가를 아끼는 감정을 ‘사랑하다’가 아닌 ‘마쉬멜로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언어공동체가 가능함을 인정하듯이, ‘+’로 겹하기를 의미하는 것이 적절한 언어공동체도 가능함을 인정하게 된다. ‘+’와 같은 수학적 표현들 및 가능한 다른 표현들에 대하여, 이 의미 귀속 표현들에서조차 궁극적으로는 의미와 표현간에 절대적 규범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규범성이 성립하는 듯이 보일 뿐이라는 것이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의 최선의 답변이라는 것이다.

6. 맺으며—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의 의의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크립키가 제시한 회의적 해결책을 원래의 목적에 가깝게 함으로서 회의적 역설 및 언어의 사용에 대해 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한다. 회의적 해결책의 원래 목적이란 의미와 언어에 대한 이론을 통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 이론 하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다. 회의적 해결책은 그 어떠한 사실도 의미를 언어에 고정시키지 못한다는 회의적 역설의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우리의 말과 글이 의미 없는 소리나 형태가 아닌 언어로 가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회의적 해결책에 따르면 언어를 사용하는 개인이 그의 언어 사용을 교정해 줄 수 있는 타인들로 구성된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언어적 표현을 옳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크립키는 언어공동체가 이 회의적 역설과 실제 언어의 쓰임 간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공동체는 의미를 언어에 고정시키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지만, 마치 의미가 언어에 고정되어 있는 듯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크립키는 회의적 해결책의 핵심인 이 언어공동체 개념에 대해서는 별 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공동체 개

념, 나아가 회의적 해결책 자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회의적 해결책이 그 본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회의적 역설의 문제와 실제 언어 활동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와 규모의 언어공동체들이 있고, 개인이 동시에 다수 언어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회의적 해결책의 내용에 추가한다. 언어공동체들은 쉽게 생겨나고 변화하며, 그 경계는 매우 느슨하다; 단 두 명만이 몇 가지의 은어를 공유한다 해도 새로운 언어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고 사소한 하위 언어공동체들이 겹쳐서 한국어-언어공동체, 영어-언어공동체, 언어-언어공동체 등의 상위 언어공동체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융통적인 언어공동체 개념을 통해 회의적 역설과 실제 언어 사용을 기존 회의적 해결책보다 더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수정된 언어공동체 개념은 “거의 모든 경우 내가 그 표현을 발화하고 있는 바로 지금 내가 발화 상대로 삼고 있는 언어 공동체의 거의 모든 성원과 같은 방식으로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이 의미 귀속 문장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다”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을 통해 드러난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회의적 역설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도 실제 언어 사용을 가장 그대로 드러내는 설명을 제시하려는 회의적 해결책의 원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이 의미와 언어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제시하는 이론인 것은 아니다. 특히 수학적 표현들처럼 의미와 표현 간에 필연성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에 대하여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와 표현 간의 규범성을 부정하는 원래 입장을 고수하는 것 외에는 더 적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문제는 의미와 언어 간에 규범성이 존재한다고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 둘 중 어느 입장도 의미와 언어에 대한 단 하나의 옳은 사실은 아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적어도 일상에서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에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은 언어공동체가 융통적이고 임시적인 것임을 드러내어 일상 언어에 대한 더 적합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며, 회의적

역설의 문제와 일상적 언어의 사용 간에 생겨난 틈을 그 어느 쪽도 훼손시키지 않고 잘 메꿔준다. 수정된 회의적 해결책의 의의는 바로 이 점, 즉 회의적 역설과 일상적 언어 사용 중 어느 쪽도 다른 하나를 위해 희생시키지 않고 두 측면을 모두 적절히 설명해 준다는 데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술 A. 크립키, 《비트겐슈타인 규칙과 사적 언어》, 철학과 현실사, 2008.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11.
- Paul A. Boghossian, “The Rule-Following Considerations (reprinted)”, Alexander Miller, Crispin Wright (edit), *Rule-Following and Meaning*, Montréal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 Martin Kusch, *A Sceptical Guide to Meaning and Rules ; Defending Kripke’s Wittgenstein*, Montreal ; Ithaca, NY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
- Donald Davidson, “The Second Person (reprinted)”,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Oxford : Clarendon Press, 2001.
- Alexander Miller, *Philosophy of Language (2nd edition)*, Montreal :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